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정영선**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인신매매를 통해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신매매를 통해 탈북한 8명의 북한이탈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여성의 인신매매를 통한 탈북 경험을 15개의 하위 개념과 4개의 상위 개념으로 구조화하였다. 4개의 상위 개념은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 '출구 없는 세계', '탈출구의 발견', '다시 시작하는 여성으로서의 삶'이며, 인신매매를 통한 탈북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빈곤 탈출의 열쇠로 선택하여 예상치 못한 착취를 경험하였으나, 적극적인 시도를 통해 자립한 여성으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안하였다. 이들이 한국에서 한 명의 주체적 여성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첫째, 맞춤형 심리 상담과 치료의 지원, 둘째, 평등한 성의식과 주체적인 인권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의 제공, 셋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에 초점을 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등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편견 감소를 위해 체계적인 시민 교육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변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북한이탈여성, 인신매매, 여성 정책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통일부의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재분석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강사(jungysjungys@gmail.com)

I. 서론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인신매매를 통해서 탈북했던 북한이탈여성¹⁾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다. 인신매매를 통하여 탈북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은 무엇이고, 그것은 이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그리고 그 결과 북한이탈여성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연구자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연한 기회에 북한이탈여성의 인신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에서 시작한다. 연구자는 다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여성을 면담한 적이 있다. 당시 면담을 진행한 여성 중 절반 정도가 인신매매를 통해 탈북하였으며, 중국으로 팔려가 생활하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²⁾으로 입국하였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이들이 인신매매를 언급하는 방식이 매우 담백하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나누었던 북한이탈여성의 일부는 인신매매에 동의하고 탈북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이 매매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일부는 인신매매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탈북하여 중국에 도착한 이후 비로소 자신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인신매매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담담한 태도가 어느 정도 납득 가능했으나, 후자에 해당하는 여성들 역시 자신의 인신매매 사실에 대해 마치 일상적인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언급한다는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다. 이들은 어떻게 인신매매를 겪은 경험에 대해 담담한 태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은 인신매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 경험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일까?

북한이탈여성을 다룬 선행 연구는 이들의 인신매매 경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북한이탈여성이 직업이나 결혼을 위해 탈북을 하였다가 이에 실패하고,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어 폭력과 성적 착취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Davis, 2006), 그리고 북한이탈여성이 거짓으로 회유되어 중

1) 이 논문에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여성’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논문의 내용 중 ‘북한이탈주민’은 남성과 여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여성’은 여성 북한이탈주민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2) 북한을 다룬 연구에서 남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식 명칭인 한국(대한민국의 약어)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인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업자³⁾를 통해 매매의 대상이 되어가는 단계를 제시한 연구(Kim et al., 2009)⁴⁾ 등은 객관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여성이 노출되는 인신매매라는 범죄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신매매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북한 이탈여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종종 이들의 경험하는 사건 중 하나로 인신매매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여정을 탐구하거나(안태운, 2015 ; 2016), 북한의 경제적 맥락과 성별 역할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Park, 2011)에서는 이주 과정에서의 하나의 사건,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으로 인신매매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인신매매의 당사자인 북한이탈여성의 관점에서 인신매매 경험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이탈여성 자신에게 인신매매를 통한 탈북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들이 그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는 거래의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 특히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성적인 착취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Davis, 2006 ; Kim et al., 2009)⁵⁾,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 3) 인신매매를 중개하는 이들을 본문에서는 ‘중개업자’로, 연구참여자의 면담 자료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기 위해서 ‘브로커’로 서술하고 있음을 밝힌다.
- 4) Kim et al.(2009)은 중국과 태국에서 보호받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여성 77명의 사례를 질적으로 탐구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인신매매의 경로를 네 단계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모집의 시작과 국경 넘기(Initial recruitment and border crossing)이다. 대부분은 모집을 위하여 북한이탈여성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나 좋은 조건의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등 거짓으로 회유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중매업자(intermediate traffickers)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중매업자 대부분은 한국계 중국인이거나 중국의 범죄 조직의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북한이탈여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흔히 성폭력의 방법을 사용한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구매자와 목적지(final buyers and destinations)가 확정되는 것이다. 구매자는 보통 두 유형인데, 신부를 찾는 중국인 남성 또는 성매매 산업의 종사자들로, 북한이탈여성은 성적인 착취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인신매매 이후 단계(after-stage)’로, 인신매매의 재활용(recycle of trafficking)이다.
- 5) Davis(2006)는 북한이탈여성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어 중국으로 건너간 후 성적 착취를 경험하며, 이후 북한으로 송환되더라도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서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므로, 이들의 삶이 심각한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등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Kim et al.(2009)의 연구 역시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이 인신매매 중매업자들에게 납치되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폭력과 성적 착취를 경험하며, 폭력으로부터 도망치려 시도한 여성 대부분이 조직화한 인신매매 집단의 영향으로 인신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신매매를 통하여 탈북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한 인신매매와 이에 수반되는 폭력과 착취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이들이 인신매매의 경험을 극복하고 인간으로서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

2018년 6월 현재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약 72%이며, 18년 상반기 입국자 비율만 고려하면 여성의 비율이 전체의 약 88%에 달한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 자료⁶⁾). 그러나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안태운, 2014; 박소연, 2017).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주요 주제는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박현선, 2000; 박성정·오은진, 2012; 조영아, 2012; 2015; 김수경, 2018)과 북한에서의 여성의 지위나 역할 등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미경, 2006; 남성욱 외, 2017; Park, 2011) 등이다.

북한이탈여성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이들이 한국에서 겪는 장애물이나 차별에 초점을 두고, 이를 극복하여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박현선(2000)과 박성정·오은진(2012)의 초점은 진로와 취업에 대한 장애와 적응에 있다. 두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지원제도와 직업분포, 소득 구성 등 진로와 취업을 통한 적응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북한이탈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동시에 탈북민으로서의 이중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조영아(2012)와 김수경(2018)은 북한이탈여성의 여성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조영아(2012)의 연구는 탈북 과정에서 자녀와 이별한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에서 재결합하는 경험을 탐구하였다. 이 연구는 자녀와의 재결합이 ‘힘겨운 노력 끝에 자녀와 재회한 후 예상치 못한 상실과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가며 진정한 가족이 되려는 노력을 통해 변화하는 자신을 형성해 가는

6)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과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이와 같은 재결합 과정을 돕고 북한이탈여성이 온전한 가족을 형성하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조영아, 2012). 김수경(2018)은 한국의 북한이탈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 30~40곳의 웹사이트를 분석하여, 북한이탈여성이 결혼 시장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미디어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순종적인 이미지, 책임감이 강한 이미지, 신분을 보장받는 안정적인 이미지 등의 고정관념을 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경험에 대한 이론을 만들고자 한 조영아(2015)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사회 관계적 배제', '노골적인 모욕', '고용 불평등'에서 기인하며, 이들이 '인내하기', '주장하기', '생각 전환하기', '노력하기', '노출수위 조절하기', '지지 구하기'의 전략을 사용하여 차별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북한이탈여성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목해야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제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의 두 번째 유형은 북한 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북한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북한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들의 의의는 상당하다. 특히 북한이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북한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증가하는 등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미경(2006)과 남성욱 외(2017)의 연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미경(2006)은 51명의 북한이탈여성을 심층 면담하였고, 남성욱 외(2017)는 167명의 북한이탈여성에게 설문문을 실시하여 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이미경(2006)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장기적으로 북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남성욱 외(2017)의 연구에서는 이와 상반된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즉,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이전 공적인 경제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에게 경제적 책임을 부여하기는 하나, 이를 통해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남성욱 외(2017)는 가부장적인 의식 및 형식적인 법률과 규정의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과 북한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이 연구의 주제인 인신매매 경험을 중심으로 탈북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신매매 경험을 포함하는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의 삶을 탐구하면서 그 일부로 인신매매를 다루는 연구이다(이희영, 2012

; 안태운, 2015 ; 2016). 이들의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생애사를 분석하면서, 탈북 이후 살아남기 위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거나(안태운, 2015 ; 2016), 인신매매의 중개업자가 되는 등(이희영, 2012), 북한이탈여성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신매매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사회상을 분석하면서 사회 현상의 하나로 인신매매를 포함하는 연구이다(박영자, 2010 ; Park, 2011).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위기 등 사회적 변화 과정을 젠더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증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와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문제를 경험하는 등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이들의 인신매매 경험을 인권 침해의 사례로 다루는 연구이다(민지원, 2003 ; 우정, 2005 ; 조소연, 2015). 이와 같은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이 탈북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생명권의 위협, 신체적 폭행 등의 문제와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적으로 결혼하게 되거나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등 인권 유린을 겪게 되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 자격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준다. 넷째, 인신매매의 과정과 단계를 설명하는 연구이다(Davis, 2006 ; Kim et al., 2009). 이런 유형의 연구에서는 인신매매의 과정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여성이 북한을 이탈하여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폭력의 희생자가 되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타내 준다.

이 연구들은 북한이탈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의의가 있으나, 인신매매 경험의 당사자인 북한이탈여성의 관점에서 그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인신매매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의 주체인 북한이탈여성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인신매매를 통하여 탈북한 북한이탈여성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이 경험한 인신매매와 탈북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 여성들이 북한을 이탈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들에게 인신매매를 통한 탈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신매매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북한이탈여성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II. 연구 설계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인신매매를 통해 탈북한 8명의 북한이탈여성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의도적 표본추출이 적합하다(Creswell, 2010 : 179). 이 연구는 참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인신매매)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성과 충분성의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적절성은 연구를 위해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충분성은 자료를 통한 해석이 결과를 도출하기에 충분한 정도, 즉 포화상태에 다다를 수 있기에 충분하도록 연구참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신경림·조명옥·양진향, 2004 : 237). 이 연구에서는 적절성과 충분성을 고려하여, 가장 연구 목적에 적합한 최초의 연구참여자(참여자5)를 시작으로 눈덩이 표집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추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다음 <표 1>과 같은 8명의 연구참여자를 확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40대 여성 7명, 20대 여성 1명으로 총 8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의 북한 거주지는 함경남·북도 및 양강도로, 중국과의 국경인 두만강에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이었다. 이들이 인신매매를 경험한 시점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로, 2명을 제외(30대 1명, 10대 1명)하고는 인신매매 당시 20대의 나이였다. 연구참여자의 인신매매에 대한 인지 및 동의 여부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탈북과 복송, 재탈북을 경험한 연구참여자 2명의 경우 1차 탈북 시에는 인신매매를 알지 못했지만 2차 탈북 시에는 인신매매에 동의하여 탈북하였다. 이들이 중국에서 거주한 지역은 허베이성, 안후이성 등 다양하였고, 기간은 3년~10년으로 차이를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에 입국한 것은 대부분 2000년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⁷⁾

연구 참여자	출생 연도	북한 거주 지(기간)	인신매매 시점	인신매매 인지 여부 ⁸⁾	중국 거주 지역 ⁹⁾ (기간)	한국입국 시점
참여자1	1973	함경북도 (약 26년)	1999~2000년	미(未)인지	허베이성, 지린성 (약 6년 7개월)	2007년
참여자2	1968	함경남도 (약 30년)	1998년(1차) 2000년(2차)	미인지(1차) 인지(2차)	안후이성, 산둥성 (약 10년)	2009년
참여자3	1974	함경북도 (약 22년)	1997년	미인지	지린성 (약 8년)	2007년
참여자4	1975	함경북도 (약 25년)	1990년대 후반	미인지	지린성 (약 7년)	2007년
참여자5	1969	자강도, 함경남·북도 (약 37년)	2006년	미인지	산둥성 (약 3년)	2008년
참여자6	1976	함경남도 (약 22년)	1998년(1차) 1999년(2차)	인지	지린성, 랴오닝성 (약 8년)	2007년
참여자7	1974	함경북도 (약 28년)	2002년(1차) 2005년(2차)	미인지(1차) 인지(2차)	산둥성 (약 7년)	2008년
참여자8	1990	양강도 (약 18년)	2009년	인지	헤이룽장성 부근 (약 6년)	2015년

2. 자료 수집과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6~7월에 걸쳐 북한이탈여성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생한 경험을 북한 여성 자신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 조영주(2004)는 증언(면담 자료)을 통해 북한 여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드러낼 수 있다고 제시하며 북한 여성의 연구에서 면담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

7) 연구의 특성상 연구의 모든 자료는 연구참여자들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참여자가 정확한 시점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표기하였다(예 : 1990년대 후반, 헤이룽장성 부근).

8) 정확성을 위해 첫 표기는 ‘미(未)인지’로, 이하 ‘미인지’로 표기하였다.

9)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 따라 동일한 지역을 중국식 표기와 한국식 표기로 표현하거나(예 : 지린성/길림성), 성과 행정지역을 혼용하는(예 : 산둥성/청도) 등 차이가 있었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성’ 단위 표기로 통일하였다. 단, 면담 내용을 인용하는 〈III 장. 분석〉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서술하였다.

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생생한 묘사가 가능하며, 문헌 자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관점을 알 수 있는 면담 자료는 북한이탈여성 연구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조영주, 2013 : 46-50).

면담 질문은 주제에 대한 필수 질문을 중심으로 면담자의 경험에 따라 자연스럽게 추가하면서 진행하였다. 필수 질문은 ‘북한에서의 삶’, ‘북한이탈의 경험’, ‘북한이탈 후의 삶’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생활을 묘사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이탈 당시의 일을 돌이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삶을 시간 순서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사람당 면담 시간은 대략 3시간이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Creswell, 2010 : 91)”하여 “체험의 본질을 포착해 텍스트로 표현(van Manen, 1994 : 57)”하는 연구 방법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의 당사자인 연구참여자의 기술과 그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포함하지만, 이 중 어느 것에 보다 더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Creswell, 2010 : 93). 연구참여자의 기술에 중점을 두는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을 ‘판단중지(epoche)’하여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처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하고자 한다(Moustakas, 1994 : 99-105). 이에 반해 연구자의 해석 과정을 강조한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체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함으로써 경험의 본질을 탐구한다(van Manen, 1990 : 43-46).

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본질을 탐구하기 위하여, 전자의 방식인 무스타카스(Moustakas)의 현상학적 분석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Moustakas, 1994 : 99-116). 첫째, 전사한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가진 선입견을 확인하고, 연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선입견이 진정한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판단중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인신매매’에 대한 선행연구를 접하면서 형성한 선입견, 즉 인신매매가 피해자의 인생에 깊은 트라우마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인지하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을 위하여 북한이탈여성의 면담 자료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 괄호 안에 넣고, 이를 제외한 진술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유의미한 진술 각각

에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개념을 도출하였다. <표 2>는 참여자7의 면담 자료에서 개념을 도출한 예시를 보여준다.

〈표 2〉 참여자7의 면담 자료에서 도출한 개념들

면담 자료	도출한 개념
막 나는 너를 만 원 주고 샀는데 내가 말 안 들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후에 그래, 부모님들이 말하더라고. 내보고. 너 만 원에 샀다고. 그래서 알았지. 그래 가지고, 내가 막 후에 언니보고 달라고 돈. 5천 원 달라고. 절반 하자고. (언니가) 줄 게 뭐예요? 그게. 안 주지. 그렇게.	자신의 가격을 흥정
미안하지. 거기 그 남자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그 부모님들이 나한테 잘해줬거든요. 엄청 잘해줬어.	중국 생활에 적응, 생각의 전환
(중국에서) 한 2천 원 모았거든요. 그래서 2천 원 모은 걸 가지고 저기 가면 북한에 가면 이거 가지고, 내가 장사하다 왔잖아요. 장사하다 왔으니까 밀천이 되겠다. 장사 밀천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제가. 애들 업고.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살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저 하여간 두 번째 넘어왔을 때도 나는 돈 벌어서 가겠다고 넘어왔지. 그래 가지고 그걸 돈 가지고 다시 나간 거예요. ‘나는 자수다. 자수하겠다.’하고 나간 거예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수하여 복송
내가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농촌에서 일하지 않고 그냥 시내에서, 식당에서 일하려고. 식당 같은 데서. 근데 가면 돈 많이 번다 하더라고.	경제적 목적의 재탈북, 자의적 탈북
중국에 가서 영화도 보고 막 한국 분들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그리고 또 중국 분들이 한국에 갔다가 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많잖아요. 교포분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또 중국, 한국에, 아니 중국에 오면 한국은 어떨더라, 돈 진짜 벌기 좋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면 아 나도 가서 돈.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남자들은 항상 자기 우월심에 살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자기 자존심? 자기 자신감? 뭐 이런 거로 살았지마는, 항상 누굴 깔보는 이런 시선에서 살았는데, 마음에서 생각에서 살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걸 다 깨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북한 남자들이.	한국의 북한이탈여성 과 여성

넷째, 위에서 도출한 개념들, 즉 북한이탈여성의 인신매매와 탈북, 중국과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개념들을 보다 직관적인 용어로 다듬고, 이를 서로 연관된 것으로 묶어 나가는 조직적 진술(textual description)을 통해 상위 개념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분석결과 도출한 개념들이 이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 적합한지 반복해서 확인함과 동시에, 상상적 변형(imaginative variation)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인신매매를 통한 탈북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인신매매를 통한 탈북 경험의 구조를 총 15개의 하위 개념과 4개의 개념으로 조직하였고,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빈곤 탈출의 열쇠로 선택하여 예상치 못한 착취를 경험하였으나, 적극적인 시도를 통해 자립한 여성으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개념의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인신매매를 통해 탈북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본질 구조

하위 개념	개념
이중의 부담, 차별과 책임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
선의를 다른 얼굴, 배신	
극심한 빈곤 속 상품화된 여성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돈에 팔려간 신부	출구 없는 세계
정서적·신체적 학대	
불가능한 귀향길	
현실과의 타협과 적응	
좁혀오는 체포망	탈출구의 발견
더 나은 삶, 중국보다 한국	
한국으로 통하는 문	
중국 가족과의 작별	다시 시작하는 여성으로서의 삶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	
새로운 관계의 형성	
북한과의 단절	

3.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적 고려

이 연구의 참여자인 북한이탈여성은 신분의 특성상 사적 정보의 보호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강하게 요구되며, 연구의 초점이 인신매매와 탈북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면담의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연구자는 첫째,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연구참여자와의 상의 하에 이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면담 장소로 선정하였다. 둘째,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연구중단의 의사를 밝힐 시

연구는 즉각 중단될 수 있다는 점과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면담하기 전 개별적으로 안내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면담을 녹음하되, 녹음 중단 의사를 밝힐 시 일시적으로 녹음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넷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코드화(참여자1, 참여자2 등)하여 작성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총 8명으로, 이와 같은 규모의 표집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즉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일반화 가능성보다 대안적인 개념인 전이성(transferability)을 추구한다. 이는 연구의 결과물을 읽는 사람이 연구물에 제시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연관시키며 이해를 넓혀가는 것을 의미한다(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2). 특히 이 연구는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전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풍부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면담의 내용을 연구참여자의 표현 그대로 인용하여 서술하여 풍부하고 많은 양의 기술(rich and thick description)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를 읽는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상황과의 전이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분석 : 인신매매를 통해 탈북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탐구¹⁰⁾

1.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

참여자들의 일부는 인신매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중국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사전에 중국으로 ‘매매’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중개업자와 상호합의 하에 이동하였다. 두 경우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와 공범자가 된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이에 이르게 된 과정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은 공통적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자신과 남은 가족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판단하였고, 그것을 통해 현재보다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10) 분석에 인용된 북한이탈여성의 면담 내용은 경험의 생생한 전달을 위하여 맞춤법에 어긋나는 일부 표현 등을 수정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서술하였다.

선택이 돌이킬 수 있는 것, 즉 다시 원래의 가족의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소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하였다.

1) 이중의 부담, 차별과 책임

참여자들은 북한에서 한편으로는 여성으로서 차별을 경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한에서는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남성은 직업을 유지하고, 여성은 직업을 갖지 않고 가정의 일을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남성의 직업이 경제적 대가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측면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 된다.

“아빠는 우리 북한 쪽에 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다 직장에 무조건 다녀야 되거든요. 직장에 나가면은 다른 돈을 준다는 거 없이 배급과 형제가 몇 명, 사는 게 몇 명, 배급으로 나오고 있어요. 나라에서 경제가 좋을 때는 배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없을 때는 지급이 안 돼요. 엄마는 주부로 되잖아요. 부양이니까. 장사를 해요. 엄마가 제가 어릴 때, 나를 때부터 엄마가 한 게, 술을 제공하는, 제조하는 거. 이렇게 옥수수 갈아 가지고 술 들이고 해서 이게 술을 뽑아서 이게 식당마다 날라주는 이런 장사를 했어요.(참여자8)”

“북한은 여자가 살려고 여자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남자보다는. 남자는 일 가고 여자가 시장에 가서 있지, 애를 돌봐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참여자6)”

“근데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일단은 팔려간다고 해도 거기서는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로 인해서 또 가족도 살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한 입만 던다는 것만 해도 또 큰 도움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한마디로 말해서 누 이 좋고 매부 좋고. 그 희생을 내가 희생되지만 어떻게 될 진 되지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도 살 수 있고 가족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참여자8)”

2) 선의의 다른 얼굴, 배신

인신매매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 여성 참여자들은 대부분 지인에게 중국에서 돈을 벌어 올 수 있다거나, 또는 중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에서 돈을 벌자는 권유를 받고 갔다가 인신매매를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돈을 벌 기회를 준다고 현혹한 다음, 일단 중국과 북한의 국경인 강을 넘게 하여 이들을 매매하는 것이 인신매매하는 자들의 방법이였다.

“중국에 가 일을 하자고 하지 않고, 온성에 들어가서 장사를, 장사 물건을 가져오자고 했어요. (중략) 가는데 강 건너 거죠. 강 건너는 게 두만강인 거 몰랐던 거죠. 중국이라고, 아니 다른, 원래 집도 다르고 볼도 환하고. 북한은 볼이 그렇게 환하지도 않고. 정전이 있어 가지고... 근데 볼도 환하고. 사람들, 사람 들어왔다고 밥 주는데 막 고기에 쌀밥에 이렇게 주는 데 다르잖아요. 벌써 느낌이 다른 거죠. 분위기 이렇게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더라구요. 중국이라고. (참여자3)”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차 시간을. 기차 역전에서. 근데 아줌마가 한 사람이 와서 딱 보더니 그땐 제가 통통하고 살집이 있었거든요. 보더니 돈 벌러 안 가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돈은 어디서 벌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 북한은 돈 버는 게 없잖아요. 다 개인 장사를 하니까. 돈을 어디서 벌어요? 하니까 아 저기 명태 공장 있는데, 명태 가공 공장. 거기 가면 돈을 주니까 갈 거냐고 하더라고요. (중략) 그다음에 (강을) 건너서 한 10분인가 건너가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참여자4)”

3) 극심한 빈곤 속 상품화된 여성

북한의 빈곤함과 대조되는 중국의 풍요는 참여자들이 국경의 강을 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인신매매를 동의한 연구참여자들은 북한보다 중국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결심할 수 있었다. 즉, 극심한 경제적 빈곤의 상태에서 이들은 그 일의 위험성(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비교한 뒤, 편익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몸값을 계산하여 일정 비율을 자신에게 달라고 흥정하거나, 북한의 빈곤한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계산하여 상품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저희도 (장사) 가면서 굶은 날도 정말 많았어요. 굶으면서 막 다니고 처음에는 그 돈 때문에 막 그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23살 때 이제 해산에 왔다가 누구 만났는데 중국에 가면 뭐 하루에 25원씩 번대요, 중국 돈 하루에 25원. 그때 당시가 생각해보면 하루에 25원이면 우리 북한 돈 750원이 됐거든요, 그때 따지면. 그래 가지고, 야,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하루에 그래 벌면 20일만 벌면 술한 돈 벌어요잖아요. 그 생각으로 나 20일만 벌고 올게 하고 간 거예요. (참여자6)”

“저도 그때 당시 장사도 안 되고 밀수 장사도 안됐어요. 속이 타는 거예요, 저도. 너무 속이 타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그 친구랑 3명이 제가 이렇게 고철, 파철을 이렇게 가서 나르는 그거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둔덕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둔덕에 쉼라고 앉아있는데 중국이 보이는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계속 전에는 앞에서 중국이 이렇게 잘 보였어요. 그래

도 그런 느낌 몰랐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보는데, 야 재네들은 괜찮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중략) 그래 알아보다가 하니까 우리 엄마가 아는 사람이 그런 브로커를 하는 사람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 알아보니까 그 브로커는 어떻게 넘어가냐고 하니까 사람을 파는 거더라고요. (참여자8)”

4)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자의 또는 타의로 국경을 건너간 연구참여자들이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탈북 초반 크게 절망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는 않았으나, 기회를 봐 중국의 공안에 적발되지 않고 북한으로 몰래 돌아갈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이들은 1년 안에만 북한에 돌아가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여의치 않을 시 자수하면 무사할 것이라 기대했다고 한다.

“좋았죠. 아니 1년 있으면 갈 줄 알았으니까. 1년 있으면 갈 줄 알았으니까. 1년만 여기서 이 좋은 데서 내가 돈 좀 벌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거기(북한) 내가 여기 왔다는 거 모르면 상관이 없을 줄 알았죠. (참여자3)”

“1년 되기 전에 나오면 괜찮거든요. 1년 되기 전에 나오려고 북한에 가서 다시 이렇게 집에 돈을 보내줬으니까. 원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소리 있거든, 1년 전에 나와서 자진하면 아무 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참여자8)”

“처음에는 제가 중국을 올 생각이 없었죠. 솔직히 말해 우리 북한 사람들은 다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뭐... 반역하겠다고 해서 가는 것보다도 그냥 배고프고 하니까는 넘어오는 거고. 그리고 또 나는, 나는 내 상황은 또 뭐 배고픈 것도 많았죠. 그렇지만은 내가 내 상황에는 가서 돈 벌어 가지고 오겠다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냥 중국에 가면 돈은 벌 수 있다 하니까. 그래서 가서 돈 벌 어 가지고 한 1년 정도 벌어 가지고 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지. (참여자7)”

2. 출구 없는 세계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인신매매의 결과, 중국 남성에게 팔려 강제적으로 혼인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중국인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기 쉬웠고, 적발의 위험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웠다. 고향인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점차 사라졌다. 중

국은 참여자들에게 출구가 없는, 닫혀 있는 세계와 같았다, 중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중국에서의 경제 상황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1) 돈에 팔려간 신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연구참여자 중에는 중국 가정에 가정부로 고용되거나,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중국에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한 여성도 있었으나, 대부분 여성은 중국의 남성에게 팔려가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등 여성성을 착취당했다. 이들은 눈앞에서 자신의 몸값이 정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자신이 돈을 지급하고 구매한 재화라는 사실은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방에 가두고) 5~6시간 지나서. 내가 있는데 한 남자가 와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 따라간 게 지금 8년 전 남자죠. 모르죠. 어떻게. 돈 얼마 줬는지 그런 것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후에 집에서 말하는데 중국 돈으로 4000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6000만이었나? 하여튼 계약 내가 너무 비싸게 줬다고. 나이가 어리고 이러니까. 6000만인가 줬던가 했을 거예요. 6000원. 6000원 여기 돈으로 300만인가?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4)”

“결혼이라기보다 그냥 팔려간 거나 같죠. 팔려간 거면 거기서 그 사람이란 그냥 있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고도 제가 봤는데 거기 갔었는데 한 석 달인가 그 남자네 집으로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남자는 나이도 다 숙인 사람이더라고요. 그건 상관없는데 그 남자가 그 무슨 어릴 때 송 뭐 이런,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거로 해서 교화소 가서 한 10년 살다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후에 알고 보니까. 범죄자죠, 성범죄자죠? 네... 그래서 그냥 오 그러네. 나는 내가 팔려간 거니까 어떻게 선택할 수 없었는데. (참여자8)”

2) 정서적·신체적 학대

연구참여자들은 종종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했지만, 두 가지 이유로 학대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이 ‘구매된 재화’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매자’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중국에서 불법적인 존재, 즉 신분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인신매매라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중국에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중국 체류는 그 자체로 불법이었다. 이는 고스란히 참여자들의 약점이 되었다. 중국인들은 공안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이들을 희롱하거나 착취하였다. 중국의

공안에 적발되어 강제적으로 복송될 경우, 북한에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들은 학대를 감수하며,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또 우리가 거기 있다가 보면 중국남자들이 되게 기썩거려요. 특히 북한 여자라는 그거 하나로.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신고할거나, 잡혀갈 건데, 밤에 나오라 이런 식으로. 그걸 피해 다니는 게, 뭐라고 할까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참여자1)”

“(시어머니가) 물건 던지고 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못살게 굴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도저히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 한 번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그럼 날 죽이세요, 했어요. 칼을 손에다 쥐여 줬어요. 너무 힘드니까. 어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는데 날 차라리 칼로 찔러 죽이라고. 내가 시엄마 손에다 칼을 쥐여 줬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미쳤냐고 막 이리는데. 그 말을 자기 아들 둘째 있잖아요. 시동생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개가 시내에 가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개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시내에서 일하는 애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방문을 딱 잠그더라고요. 내가 혼자 있는데. 잠그더니 그다음에 나한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너가 왜 그런 시비로 나오냐 그런 걸로. 한 10분인가 나한테 구타한 것 같아요. 나는 맞을 수 밖에 없잖아요. 남자한테.. 그래 딱 정신을 잃었어요. (참여자4)”

3) 불가능한 귀향길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에 건너간 초반에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돈을 벌러 갔던 참여자와 중국인에게 팔려간 참여자 모두 그러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들은 충분한 돈을 벌기 어려웠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없었다. 또한, 북한으로 돌아갈 방법도 알지 못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은 공안에 적발되어 복송되는 것이었으나, 이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므로 연구참여자들은 공안을 통해서 가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중국으로 건너온 지 1년 이내의 시점에 돌아가거나, 자수하여 북한으로 돌아간 참여자도 있었다. 그는 북한의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 내지 못했고, 1년 이내에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북한으로 자수하여 돌아갔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고 그는 결국 감옥에 들어갔다. 북한이탈여성이 중국으로 넘어간 이상, 사실상 북한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북한에 1년만 지나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저 나라를 배반하고 간 나쁜 년들이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못가고. (참여자1)”

“나(는) 가서 무죄라고 했다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가서는. 북한에 나가서 경찰도, 경찰 우린 안전원들이라 하잖아요. 저는 자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죄입니다. 저 자수는 무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다 똑같아. 어찌 창피한지… (참여자7)”

“중국물을 좀 일단 이렇게 먹고 이게 살고 보니까 이게 경제로 봐도 여기가 잘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월 좀 해서 보태서 살면은 좀 더 집에 보탬으로 주지 않을까? 내가 그렇다고 1년 돼서 넘어간다 해서 중국에 집에다 월 보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나온 거 뭐 좀 더 해보자, 해볼까? 응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1년, 2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가족이 보고 싶고 고향이 보고 싶고 진짜 막 너무 힘들어서 갈려고 그때 다시 내가 집에 가야지 하고 그때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조금 때 늦은 거예요. 이제는. (참여자8)”

4) 현실과의 타협과 적응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중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점차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과의 타협점을 찾아가 노력했다. 이들은 강제 결혼한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하나의 가족을 형성했다. 사랑으로 시작된 가족은 아니었으나, 참여자들은 자녀를 아끼고 책임감을 느꼈다.

결혼하지 않은 참여자들 역시 중국에서 일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소비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의 의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중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장점이 보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점차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중국에서 살면서 북한 사회하고 중국 사회하고 너무나도 대조적이잖아요. 야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이런 초라한 곳, 가난한 곳에서 내가 살았구나. 이게 제일 처음 느껴지더라고요. 생활환경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있었고. 우리는 자유도 없잖아요, 북한은. 그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참여자2)”

“북한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일단은 내가 죽기 살기로 뭐하지 않아도 먹을 거는 있고. 내가 조금만 일하면 돈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잡히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그게 두려워서 살면서 두려워서 그랬지, 북한처럼 사람이 막 사람을 물고 뜯고 이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국에서 살 때는 조금 그래도 마

음이 조금 여유로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죠. 거기에 북한에 왜 가겠어요.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진짜 가고 싶지 않아요. (참여자6)”

“(중국 첫 일인 세탁소에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니까 예, 천원이래도 많은 거였거든요. 그때는 그것도 거기 살다가 1년 넘으면서 또 중국물이라는 게 그 돈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만족하지 않은 거죠. (참여자8)”

3. 탈출구의 발견

1) 좁혀오는 체포망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에서 일을 시작한 초반에는 북한과는 다른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아는 주변인들의 신고로 복송될 수 있었고, 신고를 피하는 대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이처럼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언제나 복송의 공포에 시달렸다. 자신들이 복송된 것은 아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주변의 북한 여성이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복송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생활은 안정되기 어려웠고, 한 곳에 정착하기 어려웠으며, 미래를 계획할 수 없었다. 공안에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다.

“(청도 소개소 할 때는) 그때는 내가 이거 직업도 좋았고 돈벌이 좋았으니까. 구태여 그렇게 위험한 길을 선택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다가 하... 우리가 너무 이게 중국사람들한테 단련 받았어요. 한 달에 얼마씩 내라, 그리고 저 애들 당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안정된 환경이 아니잖아요. 언젠간 나도 잡히겠구나. (참여자2)”

“일단은 중국은 내가 마음이 편하지 못하잖아요. 국적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항상 언제 붙잡혀갈지 그런 걸 조바심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 삶이 없죠. 그냥.. 밤에 자도 항상 언제 잡힐, 잡힐지 모르니깐 뭐 뒷문을 만들어 놓고 자야 되고. 또 붙잡히게 되면 그냥 또 저쪽으로 가야되고. (참여자3)”

2) 더 나은 삶, 중국보다 한국

북송의 공포와 신분의 위협, 그리고 차별이 반복되자,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의 삶에 서서히 지쳐갔다. 북한의 경제적 여건보다 풍족한 중국의 환경에 점차 적응했지만, 그곳은 연구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했고, 현재 시점에 경제적으로 빈곤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중국에서 이들은 ‘지금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거나 계획할 수 없었다. 오늘 잘 지냈어도 내일 당장 공안에 체포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중국에 온 지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앞에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뒤를 돌아봐도 길은 끊긴 채로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중국에 가서 영화도 보고 막 한국 분들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그리고 또 중국 분들이 한국에 갔다가 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많잖아요. 교포분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또 중국, 한국에, 아니 중국에 오면 한국은 어떻더라, 돈 진짜 벌기 좋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면 아 나도 가서 돈. 그 북한에서는 그냥 돈. 돈이요, 돈. 그러면 한국에 가면 더 큰 돈 번다네? 아 그러면 한국 가야겠다. 그럼 이거 모은 거 집에 보내지 말고 한국 가, 한국에서 가서 저거 뭐야 더 큰 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자7)”

“개(조선족 지인)가 그래서 한국에 이런 나오는 ‘이만갑(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거 보니까 이게 내가 한국 사람 맞아? 이러니까 한국 사람이라요. 그래 그걸 계속, 계속 본 거예요. 그다음부터 중국에서. 그러니까 나도 희망이 생겼어요. 내가 가면 안 될까? 중국에서는 이거 신분도 없이 사는데. (참여자8)”

3) 한국으로 통하는 문

연구참여자들이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중국에서 국적과 신분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며, 북한이탈여성 스스로 그 방법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북한이탈여성이 중국을 벗어나는 유일한 대안이 ‘한국’임을 인식하더라도,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에 오는 방법을 발견한 것은 대부분 우연에 의한 것이었다. 우연히 주변의 지인 중 한국행을 주선할 중개업자가 있었거나, 우연히 한국행을 위한 신분을 마련해 줄 중국인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연구참여자들을 한국으로 이끈 길이였다.

“아니 제가 북한에 5촌 되는 동생이 그분도 한국에 와 가지고 한국, 저기 뭐지, 몽골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같이 오시던 분이, 어떻게 알다 보니까 한 고향 분이었고. 근데 그분이 내가 중국에서 살던, 시골에서 살 때, 한동네에서 살던 분 이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저 우리는 가명으로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예감이 ‘우리 언니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제 5촌 동생이. 연락처를 한번 달라고 해 가지고 전화를 우연히 제가 시장에 있는데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내 동생이 하나 원 나가면 언니 데려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왔죠(참여자3)”

“저는 돈도 없잖아요. 신분 살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난 먹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중국인 양부모가) 너 저기, 한국 가. 이러더라고요. 나 돈 없어요. 호구도 사야 되는데, 호구라는 게 이 신분이에요. 사야 되는데 하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마. 신분이 다 나오니까 여기로 말하면 외교부 가서 여권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들어가면 중국말로 다 심사하거든요. 너 어디서 살고, 어떻게 돼서 심사하면 제가 그거는 죽어도 못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 이모가 발이 넓거든요. 거기 외교부 과장 있더라고요. 거기다 돈 딱 뿌려주니까 이틀 만에 딱 나온 거예요. (참여자4)”

“(지인) 언니가 (한국에 먼저)와 가지고, 야 이 선이 안전하다 하길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일단 결심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온 거죠. 근데 솔직히 처음에 조금 두려움은 있어요. 저도, 안되면 그냥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니까. (참여자6)”

연구참여자 중 참여자5는 중국과 한국을 이어주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한국에 오는 것이 매우 드문 경우라고 했다. 그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로 가서, 라오스 경찰에게 ‘한국인’임을 주장하며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다. 참여자5는 죽을 각오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라오스에서 두 손 바짝 들고 나는 서울 사람이다. my family, Seoul. passport 다 잃어버렸다 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 쳤죠. 그러니까 North Korea, South Korea 막 물어본다고. South Korea 막 이랬지. North Korea 아니라고 그러지. (중략) 내가 막 달라 주면서 텔레폰, 전화 좀 해줘라 하면서 내가 막 사정

했어요. 그 라오스 대사관 한국 전화번호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다 빨리 전화 좀 해줘라. 하니까 전화 바꿔주는 게 자기가 데리러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는 데 그 조금이 언제냐고. 3일 있다 날 데리러 온 거예요. (참여자5)”

4. 다시 시작하는 여성으로서의 삶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의 과거와 작별하고, 한국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통해 자립하였다. 이러한 안정적인 삶을 토대로 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경제적 지원 요청에 지쳐,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북한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점차 북한의 가족들과의 관계도 끊어져 갔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사람들과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북한보다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다. 위험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한국으로 온 연구참여자들은 이곳에서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1) 중국 가족과의 작별

한국으로 이동한 후, 연구참여자들은 점차 중국에서 형성한 가족 관계를 단절해 나갔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의해 원치 않는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가져올 이유가 없었다. 가족 관계는 한국으로 오기 직전 또는 직후 단절되었다.

“우리는 사이는 안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착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거(사이가 좋지 않은 것)는 없었는데. 내가 이제처럼 원하던 결혼, 좋아서 만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에 올 때는 잘 살려고 오지…. (참여자3)”

“한 달 전에 갑자기 나한테 카톡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사람 문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전화, 이젠 두 번 다시는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 카톡 문자 쓰면은 자기하고는 나쁜 감정이 없지 않냐. 근데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참여자4)”

“(반석에서 대련까지) 같이 왔어요. 같이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 올 때는 그냥 온 거죠. 말하고 그냥 온 거죠. 같이 있다가. 나는 가야 되겠다, 여기에서

못 살겠다, 나는 가야 되겠다, 하고 온 거고. 또 자연히 또 헤어진 거죠, 그렇게.
(참여자6)”

그러나 자녀는 예외였다. 강제 혼인이었다고 하나, 자녀는 연구참여자 자신의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녀가 한국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위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남편이) 아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 원래는 안되죠.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개박에 없으니까 내가 강요는 안 했어요. 니가 키우겠다면 내가 (아들을) 주겠지만은 못 키우겠으면 애가 어릴 때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돈 주니까 아들 데려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죠. (참여자3)”

2)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

한국에서 연구참여자들과 같은 북한이탈여성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다양하다. 먼저 입국 초기, 국정원의 조사를 거친 뒤 이들은 하나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기관에서 한국 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2~3개월 가량 받는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조차도 한국의 생활을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히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만큼 연구참여자들은 보다 빨리 한국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이다.

교육을 마치고 한국에서 생활하게 될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주거지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 주거지는 임대인 형식으로, 거주를 위해서는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하나원 퇴소 시 지급되는 초기 지원금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했다. 이들은 초기에는 지원금에 의존하여 생활하였지만, 매우 한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특히 대부분 연구참여자(참여자 1~5)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한국 적응의 초기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비용, 즉 중개업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소진하기도 했다.

“중국보다는 좋잖아요. 근심, 걱정 없잖아요. 그냥 놀다가 잡혀가고 이건 없잖아요. 우리끼리 맘껏 놓고. 그때는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살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아니었어요. 서로 각자가 다 또 멀어졌잖아요, 그때는. 브로커가 있으니까. 저희가 올 때 브로커 따라왔잖아요. 브로커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벌어야 되니까.. 진짜 그걸 버는 동안은 또 브로커가 야~ 질기게. (참여자6)”

따라서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직업을 구하고, 임금을 받아 스스로 생활하기 시작했다. 자녀 때문에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으나,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다르지 않았다. 일은 때로는 힘들었으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은 힘든 것도 견디게 하였다. 한국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비로소 자립의 길에 들어섰다.

“거기서 편안하게 먹고 놀고 살았잖아요. 돈도 풍족하게 쓰고. 백화점 가 옷 같은 거, 화장품 다 사고. 여기오니깐 막 그게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시간 맞춰 일 나가야 되고. 12시간 또 힘들게 일하고. 처음에 진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한 달 일 해보니까 돈 딱 얼마라는 게, 내 대가가 있잖아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다음 딱 보니까 ‘어 이러네?’ 그다음에 ‘아, 이게 뭐 이런 것이구나’ 그때 생각에 그다음부터 좋더라고요. 그게. 내 손으로 돈 벌어 봤잖아요. 그다음부터 ‘아 나가 설거지라도 하면 한 시간에 이렇게도 받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조금 하죠. (참여자4)”

“(한국 와서) 6개월은 한 놀았어요. 땡땡이쳤죠. 우리가 생계비 주는 거 있잖아요. 생계비. 놀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나와서 다 멋있잖아요, 솔직히 말해. 막 여기저기 친구들 또 전화해서 만나서 놀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그냥 무료하게 생활했죠. 6개월 되니까 생활비가 딱 잘리는 거예요, 48만 원이. 아…. 그다음에는 안 되겠다. 벌어야 되겠다. 벌자니까 뭐가 없는 거야,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이게 온 거예요. 학원 다녀라. 아 그러면 나 기술 자격증 따야겠다. (참여자7)”

3) 북한과의 단절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한국의 생활에 익숙해진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지 알고자 하였고, 만약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기꺼이 지원을 해주고자 했다.

“그렇게(인신매매로) 오다 나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그냥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제가 와서 한 3년 전에 연락했었어요. 집에다. 지금부터 3년 전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중국에 있을 때는 할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래, 너무 궁금해서 엄마 연세도 있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 조금 주고 브로커를 시켜서 연락이 돼서, 연락됐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젠 죽어도 원 없겠다 하더라고요. (참여자4)”

“제가 나와서 7~8년을 연락을 못 했어요, 중국에서 살 때 한 번도. 내가 한국에 오면서 연락을 좀 취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연결 가졌거든요. (참여자8)”

그러나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북한의 가족들이 요구하는 경제적 지원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 큰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또는 연구참여자 자신은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원하였으나, 북한의 가족들이 원치 않기도 했다. 이들과 연락을 하는 것이 북한에서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단절해 나갔다.

“나와서 돈을 그때 300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 300만 원 주면서, 너 이거 나도 여기서 지금 이거 수술해 가지고 아파서 제대로 일도 못 하는데, 이거 종잣돈으로 너 이걸로 니 하나 살아라, 했는데 한 달 만에 또 온 거예요. 한 달 만에 와 가지고 (참여자1)”

“(북한의 가족과) 연락은 했어요. 저는 한 4년 전까지는 연락을 했거든요. 저도 생활비도 좀 보내주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한 4년은 딱 끊었어요. 근데 동생들은 제가 뭐 한국까지 온 줄은 모르고 일단 중국에 있는 거로 알고 하는데. 개도 ‘누나, 누나 인생 거기서래도 누나 행복하다면 자기네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고.’ (한국에 있는 것을) 뭐 굳이 밝힐 이유도 없고. 또 개네들은 군사 복무 끝나고 와서 그래도 당원이고 앞길이 있는 애들인데. 나 때문에 뭐 개네들을 굳이 앞길 망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개네들도 아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나 혼자서 조용히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라고. (참여자3)”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들을 탈북시켜 한국에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북한의 가족들이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한다. 북한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사는 가족은 그곳에서의 삶이 더 나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북의 길이 상당히 위험하므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들이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죠. 뭐 근데 와야 말이죠. 안 온대요. 우리는 잘 산대요, 거기서. 우리는 거기서, 여기로 말하면 통장. 아파트 통장처럼 그런 거 하고 있대요. 나름 거기서 만의 행복이 또 있어요. (참여자5)”

“(가족들이) 충분히 먹고 살고 이제 잘산다. 웬만하면 쑤셔놓지 말라고. 사실 오다가 잘못되면, 사람들이 데려오다가 정치범수용소 간 것도 있거든요. (거기 들

어가면) 거의 돌아 못 나와요. 그런 걸 들을 때는 본인이 ‘나 갈거야’ 이러다가 잡히면 별문제지만, 안 오겠다는 걸 굳이 데리고 왔다가 그리 될까 봐. 연락을 그다음 안 했어요. (참여자6)”

“저 지금도 연락해서 엄마보고 오겠냐고, 오라고 하니까. 엄마는 그냥 안 오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힘든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또 오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 힘든 여정을 중국은 안 거쳐서 살더라도, 내가 있으니까 중국 안 거치고 직행으로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3국을 거쳐서 와야 돼요.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라오스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그걸 해야 돼요. 또 근데 위험해요. 그거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막 원해서 간절하지 않으면은 제가 할 수가 없는 거라… (참여자8)”

4) 새로운 관계의 형성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한국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 이들은 한국의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한국 생활의 어려운 점들을 털어놓고 공감하며 위로를 받았다. 한국인들과 친구가 되거나 새롭게 가족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연구참여자들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한국에서 맺은 새로운 결혼 관계가 좋지 않게 끝이 나기도 했다.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북한이탈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시선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내 하는 말투 들으면 막 웃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자존감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왜 웃냐고 따져 묻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웃음으로 넘겨요. 재밌니까 따라 하겠지. 뭐, 이렇게? 그냥 사투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예전보다 (참여자7)”

“남한에 와서 또 큰 상처 하나 입었다면. 가족이라는 두 글자예요. 가족이라는 데서 큰 슬픔을 한 번 겪은 게, 저희 지금 신랑 만났다 했잖아요. 근데 본인하고 본인은 엄청 사랑하는데 시댁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 왔다고 형수님이 이화여대 나오셨고 또 이쪽 형수님은 또 뭐 좀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큰형수 작은형수들이 저를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고 꽃뱀처럼 자기 시동생 아파트를 뭐 먹고 나르려고 들어온 여자, 이렇게 의심을 하고 계속 왜 가족 두고 왔냐고. 왜 한국 사람은 아무하고도 가족하고 헤어지지 않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나만큼 그런 고통받은 사람 어딴어요. (참여자5)”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북한이탈여성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다. 북한에서 이들은 남성에 비해 차별받으면서도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 중국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성적인 착취와 폭력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한국은 이들에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여성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희망의 공간이었다.

“북한은 여자가 바닥이고,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자가. 아닌 거 같아요. 여기는 여자가 하늘인 것 같아요. (참여자7)”

“(북한) 남자들은 항상 자기 우월심에 살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자기 자존심? 자기 자신감? 뭐 이런 거로 살았지만, 항상 누굴 깔보는 이런 시선에서 살았는데, 마음에서 생각에서 살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걸 다 깨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북한 남자들이. (참여자7)”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의 적응이 용이한 이유가 여성의 성적인 이점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북한이탈여성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더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의 가치를 성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고 있었다.

“여자는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면 땡이요. 그러나 돈 많은 한국 여자들이 북한 남자한테 가요? 안가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 어떤 특수한 의료기술이나 있다던가, 아니면 뭐, 뭔가가 있으면 가지. 솔직히 한국 여자들이 어떤 타산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 현재 현실로 보고, 사랑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간, 부부 간, 부부 간 여기로 힘들게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넘어왔지만,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와서는 한국 남자한테 가요 다 깨지고. (참여자1)”

“(한국에) 여자가 더 많이 와요. 남자들은 중국에 와서도 발붙이기 조금 힘들잖아요. 여자들은 시집가면 그만인데 남자는 그게 안 되니까. (참여자6)”

IV. 논 의

이 연구는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겪은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여성의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여성의 인신매매를 통한 탈북 경험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 ‘출구 없는 세계’, ‘탈출구의 발견’, ‘다시 시작하는 여성으로서의 삶’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은 인신매매를 통한 탈북의 경험을 ‘빈곤 탈출의 열쇠로 선택하여 예상치 못한 착취를 경험하였으나, 적극적인 시도를 통해 자립한 여성으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탈북 경험에 관련된 분석 결과를 개념별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1. 분석 결과의 요약

북한이탈여성의 인신매매를 통한 탈북의 시작점은 북한의 빈곤한 경제적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설명하는 첫 번째 개념인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에서 잘 드러난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그 차별의 결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북한 사회가 한국에 비해 여성의 인권이 낮지만 동시에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기도 한다는 남성욱 외(201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남녀평등의 가치를 내세우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다양하게 드러나며, 특히 노동 측면에서도 여성이 더 많은 부담을 갖는다(남성욱 외, 2017: 194-195). 북한에서 성인이 직업소에 배치되는 것은 의무와 같으며, 경제적인 보상은 거의 받지 못한다. 그러나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대표하여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을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내린 선택은 다소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보상을 주는 일을 찾는 것이었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극심한 빈곤에 자의로 인신매매를 선택하였고, 자신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고 스스로를 상품화하였다. 다른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경을 넘고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중개업자의 악의를 눈치채지 못했다. 시작은 달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

의로 인신매매를 선택한 이들도, 타의로 인신매매를 당한 이들도 중국의 생활에 만족하며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국경을 허가 없이 넘었더라도, 1년 내 자수하여 복송되었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를 믿었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으며, 중국의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그러나 중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지고, 이들은 더 이상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탈북 기간은 이미 1년을 넘어가고 있었고, 탈북의 목적이었던 돈벌이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이들은 중국인이 대가를 주고 구매한 대상이므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인신매매 중개업자를 통해 중국의 남성들에게 판매되어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 상대 남성이 신체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때도 있었다.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연구참여자들 역시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과 주변의 ‘팔려온 신부’에 대한 시선에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이들은 정상적인 경로로 중국에 입국하지 않은 불법체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적·신체적 학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이들은 중국이 마치 ‘출구 없는 세계’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의 현실에 타협하고 적응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이성적으로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비록 불법체류자로서 차별이나 학대를 당하기도 하지만, 중국에서의 삶은 북한의 그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돈을 벌 길이 없어 굶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는 달랐다. 몸을 움직이면 돈을 벌 수 있었다. 돈을 벌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을 수 있었다. 중국은 밤에도 어둡지 않았다. 중국에서 벗어나길 길은 없었지만, 벗어나지 않고 이대로 머무는 것이 자신에게도, 북한의 가족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합리화하였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갔던 연구참여자들은 인신매매로 인한 탈북의 결말이 공안에 의한 체포와 복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중국을 벗어나 ‘탈출구를 발견’하고자 했다. 이들이 북한이탈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공안에 신고하는 것을 빌미로 연구참여자들을 협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포를 느꼈고, 중국에서 결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속아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북한에 돌아가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연구참여자들은 그저 중국에서

오늘의 안전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발견했다.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한국을 가본 적 있는 중국인을 통해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한국의 경제적 발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상상도 해 본 적이 없었던 이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 고려하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다. 연구참여자가 알고 지내던 중국인이나 다른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중개업자를 알고 소개해 주기도 하였고, 중국인 지인이 중국의 신분을 불법으로 구한 뒤 이를 이용해 한국으로 가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중국에서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나라의 대사관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였다.

한국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여성으로서의 삶’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에서 형성한 원치 않은 관계에 이별을 고했다. 중국인 남편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될 삶에 이들을 포함하고 싶지는 않았다. 단,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자신의 혈육이라 한국으로 데려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인신매매라는 여성으로서 하기 어려운 경험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며, 거주지를 알선해주기도 하였다. 경제적인 빈곤에 자신의 여성성을 이용해야 했던 북한이탈여성은 한국의 복지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한국에서 안정을 찾은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브로커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도 자신과 같이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국으로 오도록 설득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북한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점차 무의미하게 느꼈다. 연구참여자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경제적 지원은 이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소비하지 않고 절약한 결과였지만, 북한의 가족들은 이들이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넘치는 돈을 쉽게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이들은 그러한 가족들의 모습에 조금씩 지쳐갔으며, 북한의 가족보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열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대가가 너무 컸다. 이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브로커를 거쳐야 했는데, 그를 통하는 수수료가 너무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노력한 결실의 많은 부분이 브로커에게 지급되는 것에 불만을 느꼈다. 또한, 북한의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있지만, 이들의 한국행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적발되게 되면, 북한의 가족들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북한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들을 한국으로 불러오고도 싶었으나, 탈북의 과정에 수반하는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북한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점차 북한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과거의 관계들, 즉 인신매매에 이르게 된 북한에서의 관계들, 그리고 인신매매를 통해 형성된 중국에서의 관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였다. 이들은 한국에서 만난 남성과 결혼하여 가족이 되거나, 직장의 동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의지하기도 하면서 한국의 삶에 적응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조영아(2015)는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에서 차별을 경험하면서 북한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이 강해지고, 한국인에 대한 신뢰감이 감소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여성이라는 이유로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취업 과정과 임금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 등은 이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이탈여성으로 한국에 살아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북한에서 여성으로 차별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했던 것, 그리고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 가서 여성성을 판매하고, 학대를 받았던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찾은 최고의 행운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신매매를 통해 탈북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은 '빈곤 탈출의 열쇠로 선택하여 예상치 못한 착취를 경험하였으나, 적극적인 시도를 통해 자립한 여성으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곧 그들 자신의 성장기와도 같다. 이들은 인신매매 과정에서 자신의 여성성을 탈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 때문에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마주하며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한 명의 자립한 여성으로 변화해 나간다. 이들은 북한에서 여성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빈곤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여성성을 판매하는 등 여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왜곡되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인신매매’라는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 여성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정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인신매매’는 북한의 여성들을 착취하는 수단이었으나, 역설적으로 이들을 해방하는 계기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인신매매를 겪은 북한이탈여성이 과거의 선택에 옳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한국에 정착하고자 노력하였다.

2. 시사점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인신매매라는 인권침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탈북의 기회로 인식하고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신매매를 겪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맞춤형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여성이 인신매매를 탈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신매매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는 성적인 착취와 학대의 경험을 통해 이들이 갖게 된 왜곡된 성의식과 인권 의식을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 지원 정책은 매우 한정적이다. 통일부가 2018년 발표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의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표 4〉),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정책을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영역이 과제인 정서 안정을 위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 확대와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영역의 과제인 생활보호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표 4〉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의 비전·목표·추진과제

비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목표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우리사회 환경 조성	
추진 과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1-1.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1-2. 탈북민 취업역량 강화 1-3. 탈북민 취업지원체계 재구축 1-4. 자산형성제도 운영 1-5. 탈북민 채용 유인제도 운영 및 확충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2-1. 정규학교 탈북청소년 적응력 강화 2-2. 우수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3. 대안교육시설 환경 개선 2-4. 정서 안정을 위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 확대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3-1.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절차 개선 3-2. 정착금 지급 절차 개선 3-3.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강화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정비	4-1. 지자체의 탈북민 지원 역할 제고 4-2. 민간의 탈북민 지원 역할 제고
	하나센터 기반 강화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5-1. 하나센터 확충 및 운영기반 강화 5-2. 하나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6-1. 생활보호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 6-2. 취약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 6-3. 신변보호 체계 재정비 및 강화 6-4.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및 임시보호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탈북민을 포용하는 우리 사회 환경 조성	7-1. 탈북민-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 7-2. 쌍방향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자료 : 통일부(2018: 16)의 내용을 인용함

〈표 5〉에서는 두 영역의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과제에서는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지원, 제3국 출생 자녀가 있을 경우 교육 지원 등 북한이탈여성 자신보다는 가족 단위, 특히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과제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급비 지원,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일반적인 생활 밀착형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과제 중 흥미로운 부분은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치유 지원, 양성평등과 인권보호 교육 제공이다.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은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

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하는 폭력과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북한이탈여성이 인신매매를 경험하며 탈북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가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현재가 아닌 탈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그들의 과거에서 비롯된 성폭력의 결과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폭력과 차별뿐 아니라 ‘과거’에 경험한 인신매매에 의한 폭력에 대한 치료와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5〉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중 정서적 지원 정책

영역	주요 과제	세부 과제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정서 안정을 위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정착 지원 •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생활보호 및 심리정서 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적용 •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탈북여성 보육 지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과 치유 지원 및 양성 평등·인권보호 교육 실시

자료 : 통일부(2018 : 24~29)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둘째,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에게 평등한 성의식과 주체적인 인권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 교육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은 자신의 여성성이 수단화되었던 경험이 이들의 인권 의식 형성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신매매를 경험하지 않은 북한이탈여성이나 남성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 중 참여자4와 참여자6 등은 북한이탈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응에 유리한 것은 여성은 한국의 부유한 남성과 결혼하여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다소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여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여성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이며, 이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폄하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에게는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 교육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신매매라는

특수한 경험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에 초점을 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4>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자녀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 등 자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은 자녀의 어머니, 남편의 아내 등 누군가와의 관계로만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된 여성이기도 하다. 특히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대상, 즉 중국에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재화로 다뤄진 경험으로 인해 가족 안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내로서의 북한이탈여성, 어머니로서의 북한이탈여성에게 초점을 둔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장하여,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이들이 겪은 경험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이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안정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 아니라,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편견없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나 시민 교육을 정책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결혼 시장에서 북한이탈여성은 ‘순종적인 여성’, ‘강한 행위주체성’, ‘정부로부터 보증받은 신원’의 이미지로 재현되어 소비되는 등(김수경, 2018), 한국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이미지는 다소 왜곡되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이탈여성을 결혼 시장에서 가치 있는 재화로 바라보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탈여성이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과 주체적인 인권 의식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즉 ‘순종적인 여성’이라는 북한이탈여성의 고정된 이미지의 재생산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인신매매를 통해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북한이탈여성이 여성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면담을 통한 북한 연구의 한계이다. 김석향·이은주(2012)는 북한이탈주민이 면담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면담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김석향·이은주, 2012: 257).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면담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의문이 있는 부분을 다시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서술의 일관성을 확인하였으며, 8명의 북한이탈여성의 각기 다른 면담 자료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인신매매를 통한 탈북’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등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추후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에게 대해 추적 관찰을 실시하거나 다수의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경험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다양성에 대한 한계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40대 여성 7명, 20대 여성 1명이며, 이들이 인신매매를 경험한 시점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로 다양하다.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특정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Creswell, 2010 : 91).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다양한 맥락에서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며, 현상학적 연구는 맥락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포착할 수 있는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각자가 놓인 맥락의 차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처한 맥락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인신매매 경험 당시 북한이탈여성의 연령, 가정의 경제적 배경, 혼인 및 자녀 유무 등의 맥락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원인과 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북한이탈여성 중 ‘인신매매’라는 특수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참여자로 하여 연구참여자 자신의 관점으로 인식한 경험에 관해 탐구하였다. 이 연구와 같이 해당 경험을 한 주체의 인식을 이해하고 경험의 본질적 파악하는 것은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정책 개발의 시작점이 될 뿐이다. 앞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 발전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전문가와의 상담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탐구하거나,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과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의 삶의 차이를 분석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지속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인신매매를 통한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의 적응 및 자립을 위한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차연(2004). 중국내 거주 탈북 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여성연구논총**, 제21권, 39-53.
- 김석향·이은주(2012). 북한여성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2호, 229-268.
- 김수경(2018). 결혼시장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이미지 재현 연구, **여성연구**, 제97권 제2호, 232-259.
- 남성욱·이가영·채수란·배진(2017). 북한 여성과 통일한국의 양성평등 과제. **통일전략**, 제17권 제3호, 165-223.
- 민지원(2003). 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의 '젠더'박해: 북한여성의 난민자격 가능성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0권, 3-37.
- 박영자(2010). North Korean Gender Roles and Changes in Women: Under the Military-First Politics and the Economic crisis. **여성연구**, 제79권, 155-198.
- 박성정·오은진(2012). 북한이탈여성의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개선 과제. **직업교육연구**, 제31권 제4호, 135-152.
- 박현선(2000).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재사회화: 경제적 재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37-246.
- 밴 매넨·막스(1994). 체험연구 -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신경림·안규남(역). 서울: 도서출판 동녘(van Manen, M.,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Routledge, 1990).
- 백영옥(2002). 중국 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제1호, 241-264.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안태운(2015). 한 엘리트 북한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제22권, 235-274.
- 안태운(2016). 전후 북한여성의 삶과 탈북의 전략적 선택. **여성과 역사**, 제24권, 187-219.
- 우정(2005). 북한인권의 현실성과 문제점. **통일전략**, 제5권 제2호, 113-171.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미경(2006).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지위 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제18집 제1호, 33-55.

- 이희영(2012).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2권 제1호, 1-45.
- 장명선·김선옥(2017).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 *법학논총*, 제29권 제3호, 379-422.
- 조소연(2015). 제인권법을 통해 본 탈북난민 인권침해 현황과 해결방안. *倫理研究*, 제105권, 221-245.
- 조영아(2012). 남한에서 자녀와 개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1호, 197-222.
- 조영아(2015). 남한 내 북한이탈여성의 차별경험 과정. *여성연구*, 제89권 2호, 37-82.
- 조영주(2004). 북한 여성 연구의 자료로서 ‘증언’의 활용가능성. *여성학논집*, 제21권 제1호, 37-78.
- 조영주(2013). 여성 구술사 연구와 분과학문의 만남 : 북한 연구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0집 제1호, 73-100.
- 크레스웰·존(2010).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 조흥식·정선옥·김진숙 권지성(역). 서울 : 학지사(Creswell, J.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2nd). Sage, 2007).
- 통일부(2018).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 통일부(2018. 07. 23). “주요사업 통계 : 북한이탈주민정책”.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18.07.23 인출.
- Choo, H. Y.(2006). Gendered modernity and ethnicized citizenship : North Korean settler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Gender & Society*, 20(5), 576-604.
- Davis, K.(2006). Brides, bruises and the border : The trafficking of North Korean women into China.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6(1), 131-141.
- Kim, E., Yun, M., Park, M., & Williams, H.(2009). Cross border North Korean women trafficking and victimiz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 An ethnographic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37(4), 154-169.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Sage.
- Park, K. A.(2011). Economic crisis, women’s changing economic rol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women’s status in North Korea. *The Pacific Review*, 24(2), 159-177.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who Experienced Trafficking

Young Son, Jung*

This article explores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leaving North Korea through trafficking. Eight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who had experienced trafficking were interviewe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phenomenological analysis. 4 concepts and 15 subconcepts were deduced from this article. Four concepts were 'the way to escape from poverty', 'the world without exit', 'the discovery of escapeway', 'life as a resuming woman'.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leaving North Korea through trafficking was suggested as 'the process of starting a new life as a independent woman getting out of poverty and unexpected exploitation through aggressive attempts'. To correct distorted sex consciousness and human rights awareness through the extreme experience of trafficking, we can suggest that the policies should provide customized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reatment to overcome their injuries; conduct appropriate education program to establish gender equality and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provide supporting program with family members to get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new families in Korea; conduct civic education program for all citizens to reduce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Keywords :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women trafficking, women's policy

* Corresponding Author : Instru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